그 사람 지금은

(39) 서양화가 조규일씨

"표문화전당에 국립미술관 꼭 들어서야"

"서두른다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최소 10년을 석고 데생과 인체 소묘 등 기초를 배우는 인내만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야"

고(故) 오지호 화백의 제자로 지역 화단을 6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서양화가 백민(百民) 조규일(74)씨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다.

호남 자연주의 회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규일은 1959년 국전 출품을 시작으로 입선 10회, 특선 2회의 성적을 거뒀다.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국전을 통해 기량을 쌓아온 것이다. 그 외에 목우회에서 JP상, 홍대이사장상을 받았으며 전남도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2003년에 오지호 미술상을 수상한 만큼 상과 인연이 없는 편도 아니다.

그렇지만 예순이 넘으면서 공모전에 연연했던 자신이 그렇게도 후회스러울 수 없었다고 한다.

조금 만 더 일찍,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시골 화가로서 화단에 이름을 떨칠 유일한 수단이자 성공의 지름길은 국전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모전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었다.

뭐가 잘된 그림인지, 뭐가 잘못된 그림인지 몰라 헤맸던 실수를 제자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서두른다고 좋은 그림 그릴 수 없어 최소 10년 기초 배우는 인내 있어야"

"예술에는 외상도 없고 에누리도 없다. 오직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세속에 한 눈 팔지 말고 회화자체의 길로만 정진하기를 나는 군에게 부탁하고 싶다" 지난 1977년 3월 그의 전람회에 방문해 오지호 화백이 방명록에 쓴 글,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내용이다.

"마흔이 넘어서 그림 한 장 못 팔아도 그림에만 미칠 수 있어야만 화가가 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이를 알아듣는 이가 몇 명이나 될 지…"

평생 그림만을 그려온 그는 최근 일 이년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불만부터 쏟아냈다.

예향 이자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 문화전당이 들어서는데 전용 미술관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미술 없이 문화를, 예술을 꽃 피운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은 그 어떤 것보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생각 때문에 그는 수차례 문광부와 광주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건의했다.

현재 국립미술관은 과천에 단 한 곳이 있을 뿐이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수도가 되려면 두 번째 국립현대미술관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립미술관을 건립해 세계적인 그림들을 상시 전시할 수만 있다면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은 물론 광주를 문화 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 미술사를 개척한 오지호 화백의 유작 34점을 광주로 온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립미술관 건립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계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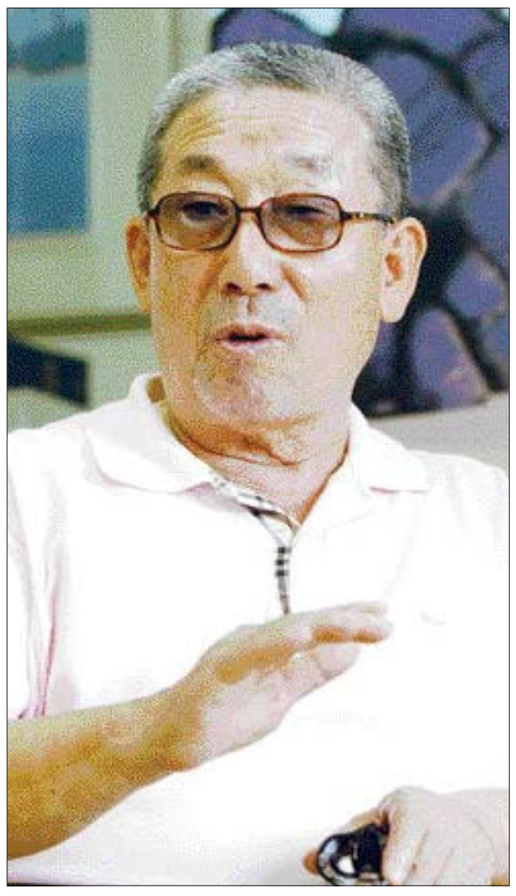
오지호 화백의 유족들이 기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립미술관의 소장이 된 만큼 국립미술관이 세워져야 되돌려 받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설치·전시작품 위주로 진행되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시류에 편승해 설치작품과 전시작품 일변도인 광주비엔날레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상태라는 것. 설치, 전시작품의 성격상 대회가 끝나면 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진행은 머지않아 대회 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구상이든 비구상이든 순수 미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액의 시상금을 걸고 수상작을 선정할 경우 매년 세계적인 작품이 탄생하고, 이 작품을 영구 전시하면 비엔날레의 위상은 물론 문화도시 광주의 자산으로 남게 된다는 아이디어다.



약 력

- ▲1934년 보성읍 옥평리 출생
- ▲국전 특선 2회·입선 10회
- ▲제12회 오지호 미술상 수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 ▲보성군립백민미술관장

1982년 스승인 오지호 화백과 울릉도 여행에 나선 조규일(왼쪽) 화백.

"광주비엔날레 설치작품 위주 한계 순수미술에 대한 지원·관심 쏟아야"

그는 문화예술의 소외지대인 고향 땅에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자신의 호를 딴 백민미술관을 건립했다. 자신의 대형작품과 사재 그리고 국내외 작가 수집품 등을 보성군에 기증해 세운 공립미술관 중에서는 국내 최초의 군립미술관이다.

이 같이 평생 그림만을 좇은 그는 내년 서울에서 가질 개인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화업 60년을 정리할 개인전인 만큼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100호 짜리 작품 40점을 비롯해 총 140점을 전시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전시회 장소도 아직 물색하지 못한 상태다.

스물 두살의 젊은 나이에 진도중학교 미술교사로 발령받아 배를 타고 진도로 들어가면서 고갱이 타히티로 가는 기분을 느꼈다는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해안과 바닷가, 포구 그림을 즐겨 그리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강진 청자와 다산

뱃길·고령토 좋아 주요관요터로 정약용, 초당서 11년간 저술·강학

강진만을 두고, 동편 대구면 고려청자도요지와 서편 도암면 정다산(丁茶山)유적지가 1963년 사적 제 68호와 107호로 지정됐다.

청자가마터는 북쪽으로 여계산(女鷄山·312m) 능선이 서쪽 미산(眉山)으로 내려서 있고, 동남쪽은 대계산(大鷄山·萬景臺387m)과 알매(卵山)가 등성이다. 사당·용운·계율·수동리 일대 해발 4~120m 상에 190여기가 분포한다.

풍수상 금계포란(金鷄抱卵)형으로 가마를 만들어 황금알을 낳았다고 해석한다. 옥녀단장의 옥채봉을 비롯하여 한골(巷洞), 닭재(鷄峙), 깐치산, 지내등, 불무등, 사그 등 같은 지명도 도요지 풍수와 관련된 것이다.

고려자기 비색(翡色) 상감청자(象嵌靑瓷)는 불(火)·흙(胎土)·유약의 극적 조화로 산출된다. 강진이 주요 관요(官窯)터가 된 것은 좋은 품질의 고령토와 편리한 뱃길(水運) 때문이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개발한 중국해상무역로가 밑바탕이었다.

14세기 왜구 침략으로 맥이 끊긴 청자도요지에 1914년 이왕실 박물관장 수에마쓰(末松熊彦)가 다녀갔다. 1930년대 조사에서는 70여 곳의 가마굴이 발견됐고, 총독도 방문해 눈독을 들였다.

대구면 사당리 당전마을 어귀에 있는 청자박물관.

2004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된 이용희씨는 1964년(당시 25세) 사당리 117번지 논에 댄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청자공장을 발견했다. 같은 해 교사 이현석은 고려청자연구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이듬해 조기정과 함께 광주 운암동에 송도요업사를 열었다.

강진군은 1977년 재현사업에 착수했고, 옛 객사리였던 당전마을에 1997년 청자박물관을 열었다. 지난 16일 끝난 제12회 청자문화제에 40여만 명이 찾았다.

다산유적지는 만덕산(萬德山·412m) 백련사 남쪽에 있다. 귤동(橘洞·柚子里) 뒷산 해발100m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본디 해남 윤씨 산정이었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1818년 다신계 절목에 "나는 1801년 겨울 강진 유배지에 당도해 동문 밖 술집에 머물다가 1805년 보은산방, 1806년 이학래 집으로 옮겼고, 1808년 봄부터 다산에 우거했다"고 썼다.

다산이 11년 동안 두 아들을 비롯 18명의 제자와 함께 저술과 강학을 했던 초당은 헐어졌다. 1957년 이을호 박사를 중심으로 정다산유적보존회가 창립되고, 다음해 초당을 복원했다. 옛 만덕분교에 1996년 관리사무소와 1998년 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2005년에는 수련원도 개관했다. 10월 7일까지 한 유물특별전에 가면 새로 찾은 다산, 이황, 윤선도, 허목, 윤두서, 이익, 이광사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